

서부신시가지에 전통미로정원 조성

전주시, 5억5000만원 투입 8월 중순까지 문화대2공원에 미로 중간에 문 설치 이용자들이 탈출로 바꾸도록 구성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한옥을 형상화한 전통미로정원이 조성된다. 시는 국비 등 총 5억5000만원(국비 5억원, 도비 5000만원)을 투입해 서부신시가지 문화대2공원에 전통담장과 한옥기와, 담장이던굴로 된 전통미로정원을 조성하는 '문화대 2공원 보수 정비사업'을 8월 중순까지 추진한다. 전통미로정원은 서양축책 등 수목으로 담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미로정원과 달리, 담장이던굴이 한옥 등 전통

미를 살린 담장을 타고 올라와 덮을 수 있게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만의 운치와 고전적인 느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정형화된 미로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 미로 중간 중간에 문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탈출로를 바꿀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미로정원의 폐쇄된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하기 위해 담장 높이를 어른 어깨높이 이하인 1.4m로 낮춰 옆 통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미로정원 양쪽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전주시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가 설치되고 긴급시에는 경고방송 및 경찰관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미로정원 중간 언덕에 전망용 전통정자를 설치해 부모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쉬 수 있도록 하고, 아간에는 미로정원 내부에 빛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인등과 미로정원 내부 간접조명 140여개도 설치된다.

미로정원 담을 덮는 덩굴류는 능소화와 담쟁이, 줄사철, 마삭줄, 송악 등 총 5종류가 식재되며, 빛이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덩굴류가 담장을 완전히 덮어 전통미로공원이 제 모습을 갖추는데는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 없는 형태의 전통미로정원으로 전주 이미지에 잘 맞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친구·연인 등 누구나 함께 와도 즐겁게 즐기고 갈수 있어 또한하의 전주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세계금연의 날' 맞아 금연 홍보 나서

전주시보건소, 풍남문 광장서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31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금연 홍보 캠페인 및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31일에는 전 세계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강도 높여 경고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와 CO측정 등의 체험을 통해 금연등록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



또한,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팀은 전주의 주요 관광지인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금연구역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는 제30주년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클린 전주를 만들기 위해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금연을 하고자 하는 전주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금연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인후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특강

전주시립 인후도서관은 지난 31일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태원준 여행작가를 초청해 시민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태원준 작가는 EBS 세계테마기행과 KBS 책을 보다, MBC 문화산책 등 책과 여행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널리 알려진 여행작가이다. 이날 특강에서는 작가가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함께 500여일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을 차례대로 여행하며 겪은 여행담을 들려줬다. 특히, 태 작가는 이날 시민들에게

길 위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는 어머니의 모습과 여행을 통해 다시 시작된 작가의 새로운 삶 등 여행과 삶, 책에 대한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여행의 즐거움과 작가만의 특별한 여행 노하우도 소개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인후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꼭 만나보고 싶어 하는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를 연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책과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계류장으로 나오는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검찰에 체포된 채 계류장으로 나오고 있다.

'동네 소식 전달, 우리가 합니다'

공동체라디오 노송FM 교육 프로그램 수료식 수료생들, 내달 예정 노송FM 개국 준비위 구성

전주시가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통해 마을과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할 PD와 아나운서 등 20명의 시민 방송활동가를 양성했다.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디오 노송FM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지난 31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1기 수료생들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노송FM 개국을 위해 개국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파일럿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개국식 행사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노송FM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기로 했다. 수료생들은 또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되는 방송실에서 올 하반기부터 지역 관련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범 방송을 운영하고, 이동방송국으로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해 행사의 흥을 돋우

며, 주민들의 자연스런 공동체라디오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개념설명, 라디오 기획과정, 장비실습, 미니FM 견학 및 진행 실습, 모뎀별 방송해보기 등 총 13강좌를 진행해왔다. 교육 참여자들은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미니FM 방송에 참여하는 등 실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역량을 강화해 왔다. 김기평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앞으로 노송FM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가상소통공간으로써 시민밀착형 정보 공유와 공동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내 공동체의 안테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송FM 방송은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직원 친절교육 위해 내부 직원 대상 강사 선발

전주시가 자체 친절강사를 활용한 전 직원 친절교육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부서별 순회 친절교육을 위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친절강사를 선발했다. 강사로 선발된 직원은 허미숙(완산도서관), 양순화(덕진구 생활복지과), 홍나희(가족청소년과), 이영주(농업기술센터) 등 4명이다. 이들은 이달부터 시청 각 부서를 방문해 업무 종료 후 1시간 정도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당면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이동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교육 집중도와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부 직원이 친절강사로 활동하면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상황과 대처법, 직원 자존감 향상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교육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수 있어 친절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이철수 기획조정국장은 "내

부 직원의 친절교육 강사 활동으로 전주시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만족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시정구호 아래 친절서비스로 시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에 빗방울... 천동번개 동반

지난 31일 전주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3시에 천동번개를 동반, 1시간당 0.4mm의 비가 내렸다. 6월 1일 전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16~20도, 낮 최고 22~28도가 되겠고 전북 앞바다 풍속은 남·남서 5~8%, 파고는 0.5m로 예상된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